

캔버라 한인성당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요한 15,9)



전담신부 양명식 대건안드레아			
주일미사 오후 3시	고해성사 오후 2시 30분	성당주소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이메일 canberra.kcc@gmail.com	전화 0490-795-346	카카오톡 채널 '캔버라 한인성당' 검색	

| 주일미사 성가번호 |

입 당	봉 헌	영 성 체	파 견
<가톨릭 성가 26번> 이끌어 주소서	<가톨릭 성가 35번> 나는 포도나무요	<가톨릭 성가 188번> 천사의 양식	<가톨릭 성가 28번> 불의가 세상을 덮쳐도

제 1독서 | 이사야서 55,1-3

화답송 | 시편 145(144)

◎ 주님, 당신 손을 펼치시어 저희를 은혜로 채워 주소서.

○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하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넘치시네. 주님은 모두에게 좋으시며, 그 자비 모든 조물 위에 내리시네. ◎

○ 눈이란 눈이 모두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은 제때에 먹을 것을 주시나이다. 당신은 손을 펼치시어, 살아 있는 모든 것을 은혜로 채워 주시나이다. ◎

○ 주님은 가시는 길마다 의로우시고, 하시는 일마다 진실하시네. 주님은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진실하게 부르는 모든 이에게 가까이 계시네. ◎

제 2독서 | 로마서 8,35.37-39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 알렐루야

복음 | 마태오 14,13-21



<오늘의 독서 및 복음>

제 1독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목마른 자들아, 모두 물가로 오너라.

돈이 없는 자들도 와서 사 먹어라.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술과 젖을 사라.

너희는 어찌하여 양식도 못 되는 것에 돈을 쓰고
배불리지도 못하는 것에 수고를 들이느냐?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음식을 즐기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오너라.

들어라. 너희가 살리라.

내가 너희와 영원한 계약을 맺으리니

이는 다윗에게 베푼 나의 변치 않는 자애이다."

제 2독서

형제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혈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의 도움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겨 내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저 높은 곳도, 저 깊은 곳도,

그 밖의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복음

그때에 세례자 요한의 죽음에 관한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서는 배를 타시고 따로 외딴곳으로 물러가
셨다.

그러나 여러 고을에서 그 소문을 듣고 군중이 육로
로 그분을 따라나섰다.

예수님께서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 그들 가운데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 주셨다.

저녁때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여기는 외딴곳이고 시간도 이미 지났습니다.

그러니 군중을 돌려보내시어,

마을로 가서 스스로 먹을거리를 사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낼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이르시니,
제자들이 "저희는 여기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밖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서는 "그것들을 이리 가져오너라." 하시고는,
군중에게 풀밭에 자리를 잡으라고 지시하셨다.

그리고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찬미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
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그것을 군중에게 나누어 주
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열두 광주리에 가득 찼
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들 외에 남자만도 오
천 명가량이었다.

오늘의 시(詩)

이무래도 나는

- 이해인

누구를 사랑한다 하면서도

결국은 이렇듯 나 자신만을 챙겼음을

다시 알았을 때 나는 참 외롭다.

많은 이유로 아프고 괴로워하는 많은 사람들 곁을

몸으로 뿐 아니라 마음으로 비껴가는

나 자신을 다시 발견했을 때,

나는 참 부끄럽다.



"기쁨 뒤에 슬픔이 오는 건 아름다운 마음이야.
쫓아내지 말고 품어주어라 아주 예쁜 돌이 된단다.
햇빛 뒤에 그늘이 있는 건 사랑스러운 모습이야.
밝은 미소를 짓지 않아도 사랑할 이유가 많단다."

'악뮤'라고 부르는 악동뮤지션의 새 노래를 요즘 즐겨 듣습니다. 아픈 마음에 연고를 발라주는 것 같은 노래예요. 처음 이 칼럼 제안을 받았을 때 '나의 기쁨과 슬픔'으로 칼럼 제목을 삼으려 했는데 그때 생각했던 마음이 이 노래에 오롯이 담겨 있어 신기하기도 합니다. 서로 알지 못해도 마음은 이렇게 저절로 연결이 된다고요.

새로 나온 앨범의 노래들은 악뮤의 오빠 찬혁이가 우울증과 여러 이유로 힘들어하던 동생 수현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만든 것인데요. 찬혁은 이에 대해 "동생을 잘 프로듀싱해주고 싶었다"고 표현을 하네요. 얼마나 예쁜 말인지요. 노래처럼 동생을 잘 가꾸어주고 싶은 마음.

수현은 오빠가 입대한 후 책임감과 부담감에 짓눌려 커튼을 친 어두운 집에서 혼자 지냈다고요. 폭식에서 위로를 찾는 바람에 몸이 급격히 불기도 했다고요. 그런 동생에게 오빠가 손을 내밀어 다시 세상으로 끌어내어 준 것인데, 담담하게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그 힘은 바로 사랑이란 생각이 들어요. 오빠의 사랑에 동생도 용기를 내어 응답을 한 것이고, 둘은 다시 무대에서 예쁜 노래를 부릅니다.

찬혁은 말합니다. 슬픔 다음에 기쁨에 대해서는 대개들 좋다고 생각하지만 기쁨 다음에 슬픔은 그다

지 좋아하지 않는다고. 기쁨 다음에 슬픔까지가 하나라고요. '나의 기쁨과 슬픔'을 칼럼 예비 제목으로 처음 떠올렸을 때도 기쁨과 슬픔이라는 상반된 감정이 삼쌍둥이처럼 하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슬픔을 대개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쫓아내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아픔도 마찬가지로요. 기뻐던 만큼 슬프고 슬펐던 만큼 기쁘다고요. 사랑한 만큼 아프고 아팠던 만큼 사랑하는 거라고요.

그러니 슬픔이나 아픔을 쫓아내지 말고 품어주는 일은 우리가 예쁜 돌로 단단해지는 과정이지 싶습니다. 4월에서 5월, 초록이 짙어집니다. 어제는 독감으로 병원에 다녀오는 길에 햇살이 너무 눈부시고 신록이 너무 예뻐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저도 모르게 "주여!" 했답니다. 어지럽고 아찔한 날이었기에 그 부름은 기쁨이면서도 탄식이었어요.

마태오복음은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이라야 들어간다"(마태 7, 21)고 했는데, 하느님을 부르며 하느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길이 쉽지 않다 느껴질 때가 많아서 요즘 자주 질문을 하곤 합니다. 제가 맞나요? 주님?

그래도 기쁨과 슬픔을 함께 안으며 천사처럼 고운 노래를 불러주는 이들이 있어 오늘도 행복합니다. 오늘도 힘을 냅니다. 기쁨 뒤의 슬픔을 겁내지 말라고,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고, 슬픔도 축복이라고. 나를 나로 살게 하는 힘은 그 모두를 다 품어주는 데서 오는 거라고, 마음을 다독입니다. 매일 새로운 길 위에서 품어줄 것들을 떠올리며 새로운 기도를 합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들을 계속 가꾸어 나가며, 그 선물들이 여러분을 하느님께로 이끌게 하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인생에서 찾고 있는 모든 것이시며,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안절부절못하는 마음을 진정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일을 위해 창조되었으며, 잠시 지나갈 세상적인 것들은 의미와 행복에 대한 여러분의 갈증을 해소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공지 사항

1. 여정 - 시즌 9 안내

9월 1일(화)부터 zoom 온라인을 통하여 매주 저녁 7시에 성경모임이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2. 공동체 식사 나눔

오늘 미사 후에는 교육관에서 식사 나눔이 있습니다. 나눔 봉사해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 25-26 회계 연도 재정 보고

다음주 주일 (8월 9일) 미사 공지사항 때 재정분과장 이상명 다니엘 형제님께서 재정 보고를 해주시겠습니까.



| 공동체 기도 지향

* 예비 신자들을 위하여

<8월 축일자들을 위하여>

- * 최원미 클라라 (8.11) * 이민정 글라라 (8.11)
- * 최은희 헬레나 (8.18) * 임채숙 마리아 (8.15)
- * 강하니 스텔라 (8.15) * 정루이 루이스 (8.25)

* 교황님의 이번달 기도 지향 - <도시 복음화>

익명성과 고독이 만연한 대도시에서 공동체 건설을 위한 창의적인 방법을 발견하여 복음 선포를 위한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봉헌금 & 교무금 | (7월 25일 ~ 7월 31일)

봉헌금	\$ 230			
교무금	\$ 310			
구민식	양홍석	윤현태	이국원	이지영
정은영	주정자			

| 온라인 목주기도 모임 |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Zoom 회의실 ID: 588-790-0921 P/W: 69g58g	

| 교무금 온라인 납부 정보 |

Name: Korean Community Church

BSB: 062786

Account Number: 000027424

*영문 이름과 성 모두 표기해주세요.

(예: Gildong Hong)

| 퀸비안 사랑의 선교회 봉사활동 |

일시	매월 둘째 주 토요일, 09:00~12:00
장소	3 West Ave, Queanbeyan, NSW

| 8월 공동체 실천 |

세상을 떠난 이들과 유가족들을 위해서
주모경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바치기.